

이주 시기와 형태에 따른 필리핀 한인동포의 국가 정체성 연구*

김 동 엽**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한인동포의 국가 정체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한국 혹은 한국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국가 정체성을 전수하고자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들의 한국 국적 유지 여부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인의 필리핀 이주 패턴은 그 특성에 따라 3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적 관계 혹은 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이주자들이 가지는 국가 정체성은 떠나온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여부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전수하는 데 또 다른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낳은 자녀들은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은 찾아보기 힘들며, 한국인 부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 또한 대단히 희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인동포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어를 기본언어로 하는 초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기를 선호하고,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전수하는 것에 소홀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6). 줄고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부산외대 동남아시아지역원 HK교수, dykim@iseas.kr

주제어: 필리핀, 국제이주, 한인동포, 국가 정체성, 초국가주의

I. 머리말

역사적 맥락에서 필리핀은 한국과 다양한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333년 간(1565-1898)의 스페인 식민통치를 거치면서 통일된 국가형태를 갖추게 된 필리핀은 이후 미국의 식민지배 하에서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날의 국가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인의 필리핀 진출은 근대국가 수립 이전의 시기에도 있어 왔다. 학술적 검증이 필요한 이야기들까지 포함하면 그 시기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이도학 2010). 임진왜란 후 포로로 끌려갔던 한인이 일본을 거쳐 필리핀에 이주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필리핀 자료에서 초기 한인의 필리핀 진출을 확인할 수 있다(Blair and Robertson 1906). 19세기 들어서는 표류의 경험과 기록을 통해 필리핀의 생활상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최성환 2010), 20세기 초에는 국제적 명성을 얻은 한국산 명품인 인삼을 팔기위한 인삼장수들의 발길이 필리핀까지 도달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오영섭 2015). 이후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이나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필리핀 땅을 밟은 한인도 상당수 있었다(김도형 2014; 김민정 2015).

그러나 이 시기까지 한인의 필리핀 진출은 오늘날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이주라기보다는 표류와 같은 우연, 혹은 식민지하에서 이루어진 기획된 이주나 징용과 같은 타율적 측면이 강하다. 한인의 필리핀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 외교적 관계가 수립되면서부터였다. 특히 전후 전개된 동서(東西) 간 냉전체제 하에서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속하여 국제사회에서 파트너로서 함께 활동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필리핀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군대를 파병한 국가였다. 한국전쟁에 필리핀은 총 5개 보병 대대 7,420명을 파병하였으며 그 중 112명의 전사자와 299명의 부상자를 낳기도 했다. 필리핀은 한국의 전후 복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문화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혹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어왔다(Polo 1984).

이주의 흐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국 간 경제관계는 194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한국이 주로 인삼제품과 같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필리핀으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였다. 그러나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1970년대 들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양국 간 경제력이 역전되고 그 격차가 커지면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의 형태도 차츰 변화했다. 한국은 필리핀에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저임금을 겨냥한 투자의 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필리핀은 한국에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저임금 노동력 시장에 인력을 송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Kim 2015, 691-703). 이처럼 양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관계의 형성과 변화는 한인의 필리핀 이주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했다. 특히 양국 간의 경제적 위상의 변화는 한인들의 필리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이주의 동기와 목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89년 한국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와 이후 확산된 국제화 추세, 그리고 2006년 해외부동산투자자유화 정책에 따른 한인의 해외투자 열기는 한인의 필리핀 이주를 급속히 증가시켰다. 이러한 이주의 흐름은 양국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격차와 상호관계 속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주의 목적도 다양한 차원으로 분화되었다. 즉 사업, 교육, 선교, 그리고 은퇴를 포함한 휴양 등 다양한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들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체류 기간도 이주의 목적과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유동적이며, 항공노선의 확대와 확산에 따라 정착지로서 수도 마닐라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 도시들의 한인수가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2012년 이후 필리핀에 입국하는 한국인 수는 매년 1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외교부에서 집계한 필리핀 한인동포¹⁾ 수는 93,093명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에는 필리핀 영주권자가 1,176명이고, 장기체류자가 91,895명이며, 외국국적의 한인동포가 2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재외국민 등록률은 16.96%인 것으로 나타난다.²⁾

한인의 필리핀 이주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김동엽 2009; 김민정 2014, 2015; 박정현·김동엽·리노바론 2015), 이들 또한 특정 유형의 이주와 특정 부류의 이주를 다루고 있어서 필리핀 한인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김동엽(2009)의 연구는 한인들의 필리핀 은퇴이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가 노령화 되면서 노년기를 보낼 은퇴지로서 필리핀의 환경과 여건 등을 현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편 김민정(2014)의 연구는 한인의 필리핀 이주 초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한인 결혼이주자, 특히 1950년대 필리핀 남성과 결혼하여 필리핀에 정착한 한국여성의 삶을 인터뷰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박정현·김동엽·리노바론(2015)의 연구는 한국과 필리핀의 교류사 전반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나

1)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2호에서는 동포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한편 [재외동포법] 제2조에서는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다(설동훈 2014, 284). 본 글에서 필리핀 ‘한인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정의에 따라 규정하며, ‘한인’ 혹은 ‘교민’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민자를 받아 들여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결혼이나 특수한 사례에 따른 귀화만을 허용하는 필리핀의 이주환경을 고려하여,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중장기로 체류하는 한인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2) 본 통계자료는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각지역한인회, 이민청의 자료를 취합하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집계한 현황이다.

누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필리핀 한인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 한인사회 내부의 구성과 분화와 같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외국문헌으로서 필리핀 한인사회의 형성 과정과 특성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소개한 글은 카츠미(Kutsumi 2007)의 연구가 있다. 카츠미의 연구는 한인들이 필리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필리핀 내 한인사회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분화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카츠미의 연구는 주로 필리핀 현지 한인사회의 구성과 분화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주의 맥락이나 이에 따른 구성원들의 분화 등 필리핀 한인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본 글에서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주 시기와 형태에 따른 국가 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체성(identity)이란 개념은 대단히 복잡적이고 유동적이며 포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된다(미셸 세르 외 2013, 19). 이는 인간의 삶이 하나의 시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며, 이에 따라 정체성의 양상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이다(박승규 2013, 456; 이석인 2015, 191). 사전적 의미로서 정체성은 어원에 따라 ‘동일성(sameness)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기성(selfhood)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정의 된다(윤성우 2004). 여기에서 자기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동일성은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본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나는 무엇(being)인가’에 관한 것이고, 변화하는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이 되어 가느냐(becoming)’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시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박승규 2013, 456, 459). 또한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도 이와 같이 유동적인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민족 혹은 국가 정체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³⁾ 앤더슨(Anderson 2003)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묘사하여 동일한 혈통이나 역사 혹은 문화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와 우리의식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합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한편 홉스봄(Hobsbaum 1992)은 민족을 정치·문화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목적, 즉 체제 정당성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파생물로 본다. 민족은 제도화된 정치 체제인 국가를 통해서 보다 완전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는 제도를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국가 정체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즉 개인은 국가 정체성 이외에도 출신지역이나 직업, 혹은 계층과 같은 다양한 집단 정체성을 가진다⁴⁾(김휘택 2013, 315). 초국가주의 시대인 오늘날 국가 정체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즉 이중 혹은 다중국적이 존재하고, 사회적 공간의 개념이 국가의 범위를 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⁵⁾ 이처럼 다변화되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해외동포들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인 해외동포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

3) 한국사회에서는 ‘혈통의 종족집단’의 성원자격인 ‘민족’개념과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성원자격인 ‘국민’을 사실상 동의어처럼 사용해 왔다(설동훈 2014, 280). 민족 정체성의 정의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이석인(2015, 193)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윤인진은 민족정체성을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김혜진은 주관적, 객관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자민족과의 동일화 과정과 타민족과의 상이점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봤다. 한편 핀니(Phinney)는 민족적 자기 동일시, 소속감, 자신의 민족 집단에 대한 태도, 사회적 참여 및 문화적 관습 등이 민족정체성의 핵심요소라고 하였다.”

4) 본 글에서 ‘국가 정체성’은 혈통에 기초하여 변하지 않는 ‘민족정체성’이나 시민권이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국민정체성’과는 달리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소속감과 일체감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개인이 선택을 강조하는 유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5) 한국은 2011년부터 국적법을 개정하여 ‘단일국적주의’를 파기하고 ‘복수국적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설동훈 2014, 280). 한편 필리핀은 2003년 RA9225를 통해 이중국적 취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어졌다. 주로 일본이나 미국 혹은 중국과 같은 한인의 이주가 역사적 맥락 하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해외동포들의 재입국과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남근우 2011; 설동훈 2014; 윤인진·임창규 2008; 이석인 2015; 홍용희 2012 외 다수).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정치나 권력의 영향을 받으며, 타 행위주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나와 타자를 구별함으로써 차별성과 특수성을 획득하고 전수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전수된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이지만 전수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적 변수가 개입됨으로써 재구성된다(남근우 2011, 165). 이러한 해외동포의 민족 혹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필리핀 한인동포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와 본질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과 이주민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수용국의 정책적 차이로 인하여 필리핀 한인동포의 국가 정체성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필자는 필리핀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인동포 총 19명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인터뷰에 포함된 한인동포들이 각 시기별 필리핀 한인동포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이들 개인의 이주와 정착과정 그리고 국가와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한인의 필리핀 이주 시기별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가 정체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주형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절에서는 각 시기별 그리고 형태별로 구분하여 필리핀 한인동포들의 국가 정체성의 차이를 집중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은 필리핀 한인동포의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나름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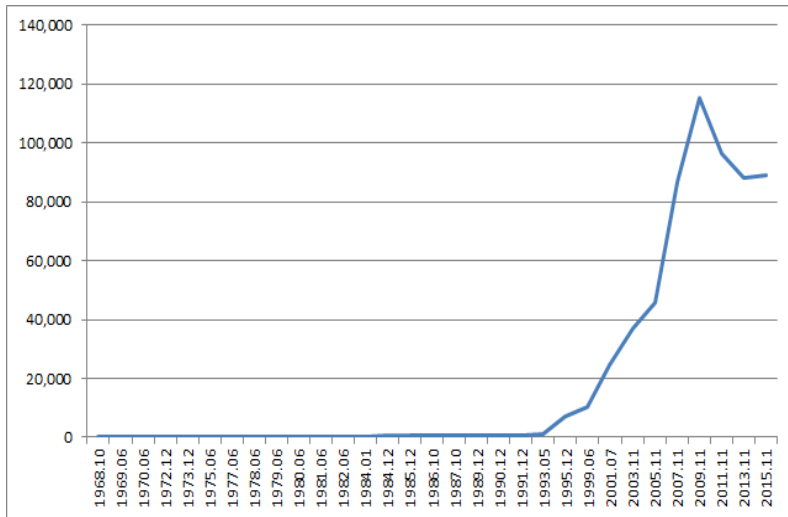
II. 한인의 필리핀 이주 시기와 형태

국제이주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들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다양하다. 전쟁이나 기근,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에 의해 국제이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이주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에서는 주로 인구학적인 불균형, 경제적 기대에 대한 개인의 합리성,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전략, 국가적 정책, 그리고 사회적 자본 등을 중심으로 이주의 원인을 설명한다(김용찬 2006; Castles 2002). 오늘날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에도 이주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한국전쟁이 일부 이주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전쟁이라는 사건보다는 개인이 경제적 합리성에 의거하여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주의 흐름과 형태는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경제적 발전격차가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국 간의 경제적 발전격차는 이주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실제로 이주의 흐름을 결정하는 흡입과 배출(push-full) 요인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나 이주관련 정책 등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한인의 필리핀 이주도 정치·경제적 요인에 따른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이주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필리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귀화라는 방법 이외에 법적으로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필리핀 한인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한다. 이는 미국이나 호주, 혹은 캐나다와 같은 합법적 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여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인들과 구분된다. 또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부모 혹은 조부모가 이주하여 정착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인 후손들과도 구분된다. 필리핀의 한인들은 대다수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자격

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일부 필리핀인과의 결혼이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 귀화하여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리핀의 한인동포 수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해외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7년에 잠시 증가세가 주춤했던 것과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필리핀 한인동포들의 생활이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림 1〉 필리핀 한인동포 현황, 1968~2015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한인의 필리핀 이주 시기는 보다 세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고자 한다. 이 세 시기는 송출국인 한국과 수용국인 필리핀 간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

류하였다. 특히 양 국가의 경제적 위상의 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삼은 것은 송출국과 수용국의 경제적 차이는 이주자들의 형태와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이주 이론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에서 보다 선진화된 국가로의 이주형태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하는 형태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한인동포들은 1970년 이전에 필리핀에 이주한 한인들이다. 이 시기에 이주한 한인들은 일부 일본 식민지하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갔다가 머물게 되었거나, 독립 후 유학이나 상업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 시기 가장 특징적인 이주 유형은 한국전쟁 이후 필리핀 군인이나 군속들과 결혼하여 이주한 한국 여성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열악한 한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적인 필리핀 사회로의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한인동포들은 1970~80년대에 이주한 한인들을 포함한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경제적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적 발전수준이 전환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기업 주재원으로 이주했다가 이들 중 일부는 필리핀에 남아 개인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국제기구(ADB, WHO, IRRI)나 외국기업에 근무하던 사람들, 그리고 유학생과 선교사 신분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도 있다. 이 시기에는 한국사회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필리핀에 이주한 한인들은 대부분 한국사회에서도 해외진출이 가능한 특별한 자격이나 여건을 갖춘 사람들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에서 필리핀에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한인동포들은 1990년대 이후에 이주한 한인들이다. 이 시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인 위

상이 높아진 반면, 필리핀은 해외로 가정부와 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로 전락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연히 역전된 상태였다. 특히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자유화와 2006년 해외자본투자자유화 정책 등과 같은 해외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의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1997년과 2008년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은 한인의 필리핀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은 일시적으로 여행객의 감소와 유학생의 귀국 등으로 필리핀 한인사회를 위축시키기도 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그 감소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세 번째 시기에는 필리핀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과 어학연수생 수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여행업, 숙박업,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이 나타나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수도 급속히 증가했다.

이상과 같이 구분한 이주의 시기를 국가 정체성의 변수로서 종적인 구분으로 본다면, 이주의 형태는 횡적인 구분이 될 수 있다. 필리핀 이주 한인들의 이주의 형태는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한인사회는 국제기구나 국가 혹은 기업의 주재원들이 특수한 한 축을 이루며, 다른 한 축으로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생활하는 동포들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주거지나 사회적 활동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삶의 터전으로서 필리핀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또 다른 한인들의 그룹들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선교사들이 있으며,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장기 거주하는 동포들도 있다. 한편 필리핀 한인사회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또 다른 구분은 국제결혼 여부이다. 오늘날 필리핀 한인사회의 중심은 물론 한국인 끼리 결혼한 사람들이지만, 초기 필리핀 한인사회는 필리핀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한인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점차 필리핀 한인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비교적 근래에 필리핀인과 결혼한 한인들도 주류 한인사회에 잘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다른 한인동포

들과 마찬가지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한국인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에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상황적 변수의 변화와 함께 타 행위 주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되고 전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필리핀 거주 한인들의 국가 정체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 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한 세 시기와 이주의 형태 중 국제결혼 여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필리핀 한인동포들과의 집중 인터뷰 내용 중에서 국가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한국 혹은 한국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 정체성을 전수하고자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들의 한국 국적 유지 여부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필리핀 한인동포의 국가 정체성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필리핀 한인동포에 대한 집중인터뷰는 2017년 7월과 2018년 1월에 필리핀 현지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이주 시기와 체류 기간, 그리고 국제결혼 여부 등 일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각 시기별로 배분하였다. 인터뷰는 이주 동기와 정착 과정 그리고 한국 및 한국인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대부분 대상자의 동의 를 얻어 녹음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국가 정체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명확히 계량화 하여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리핀 한인동포들의 국가 정체성을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본인의 국가 정체성 요인으로는 한국 국적의 포기 여부와 한국 혹은 한인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모의 역

할이 중요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정체성의 지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자 19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각 시기별로 3명씩의 인터뷰 사례를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아래에 소개하였다.

<표 1> 필리핀 한인동포들의 국가 정체성 관련 인터뷰 요약

시기	한인 동포	출생	이주	본인			자녀들	
				국제결혼	국적	한인활동	국적	주요언어
제1 시기	1a(여)	1936	1955	예	필리핀	수동적	필	영/필
	1b	1934	1964	아니오	한국	수동적	미/필	영/필
	1c	1948	1967	예	필리핀	수동적	미/필	영/필
	1d	1913	1938	예	필리핀	적극적	필	영/필
	1e	1933	1965	아니오	한국	적극적	미	영/필/한
제2 시기	2a	1940	1973	아니오	한국	적극적	미	영/한
	2b	1944	1979	아니오	미국	보통	미	영/한
	2c(여)	1954	1980	예	필리핀	수동적	한	영/한/중
	2d	1928	1970	아니오	한국	적극적	미	영/한
	2e	1927	1975	아니오	한국	적극적	미/필	영/한
	2f	1950	1977	예	한국	적극적	-	-
	2g	1952	1984	아니오	한국	적극적	미	영/한
제3 시기	3a	1963	1992	예	한국	적극적	필	영/필
	3b	1968	1998	아니오	한국	적극적	한	영/한/중
	3c	1973	2003	아니오	한국	보통	-	-
	3d(여)	1962	1991	예	한국	적극적	미	영/필
	3e	1980	1995	아니오	필리핀	수동적	한	-
	3f	1974	2000	아니오	한국	적극적	한	영/필/한
	3g	1970	2001	예	한국	수동적	-	-

1. 제1시기 이주 한인의 국가 정체성

이 시기에 이주한 한인들 중에는 총 5명에 대해 집중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1955년 필리핀 남자와 결혼하여 이주한 1a씨⁶⁾, 1964년 필리핀에서 사업하던 작은아버지의 초대로 이주한 1b씨⁷⁾ 그리고 1967년 혼자 유학을 와서 정착한 1c씨의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a씨는 1936년생으로서 한국에서 필리핀 남성과 결혼하여 1955년 필리핀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필리핀에 살고 있다. 1a씨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재가하여 힘든 생활을 보냈으며, 야간 학교에서 배운 타이핑 기술로 미군캠프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잘생기고 친절한” 필리핀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필리핀에 와서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아 많이 외로웠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말도 배우고 대학에도 진학했으며, 남편의 작은아버지의 권유로 안경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1a씨는 한인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분히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주 초기에는 한국대사관에서 초대하는 파티에 가기도 했고, 필리핀인과 결혼해서 이주해 온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다. 또한 한인교회도 오랫동안 다녔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필리핀 한인노인회에만 참석하고 있다. 한국에 관한 소식은 주로 교민신문을 통해 접하고 있다. 주위의 필리핀 사람들은 1a씨가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아줌마’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리고 필리핀에 오래 살았지만 스스로를 여전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6) 본 인터뷰는 2017년 7월 27일 마카티에서 실시하였음.

7) 본 인터뷰는 2017년 7월 31일 마카티에서 실시하였음.

8) 본 인터뷰는 2017년 8월 3일 케손에서 실시하였음.

1a씨는 현재 필리핀 남편은 사망하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1a씨는 자녀들에게 한인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전수하지는 않아 보였다. 아들 둘에게 처음에는 한국말을 가르치려 했지만, 싫어해서 포기하고 필리핀어와 영어만 익히게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굳이 한국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자신들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좋아 한다고 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처럼 해양기술자(marine engineer)가 되었고, 필리핀 여자와 결혼하여 큰아들은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필리핀에 살고 있다.

1b씨는 1934년생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녔으며, 30살에 되던 1964년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던 작은아버지의 초청으로 필리핀에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1b가 필리핀에 이주한 지 6개월쯤 되던 때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홀로 많은 고생을 했으며, 스스로 터득하여 한국제품을 필리핀에 들여와 중국인 도매상에게 넘기는 무역업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끼니도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한인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했다고 했다. 이후 사업을 하면서 한인상공회의소나 무역인협회에도 나가 봤고, 한국대사관에서 초대된 모임에도 참석해 봤지만 자신이 갈 곳이 못 된다는 생각에 끊었다고 한다. 1b씨는 당시 한국과 필리핀이 맺은 협정에 따라 양국에서 매년 50명씩 영주권을 주던 시기에 영주권을 받아 살고 있다. 1b씨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였다. 한국에 대한 뉴스나, 재외국민투표, 그리고 한인사회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다. 요즘은 심심도 하고, 회장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소일삼아 필리핀 한인노인회 모임에 나가고 있다고 했다.

1b씨는 1970년에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슬하에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1988년에 아내가 사망했고 홀로 두 자녀를 키웠다고 했다. 필리핀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필리핀 학교를 다녀서 한국말은 잘 하지

못하고 주로 영어와 필리핀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아들은 한국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딸은 미국에 가서 미국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고 했다. 아들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1c씨는 1948년생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14세 때에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로마와 태국에서 생활하다가 19살이 되던 1967년에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 1c씨는 어려서부터 시작한 외국 생활과 국제학교를 다닌 경험 등으로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에 그다지 의미가 없는 초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였다.⁹⁾ 한국인이면서 또한 필리핀인이기도 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불편해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했다. 필리핀한인회의 일에도 잠시 관여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의 소식은 주로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을 읽으며,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K씨와 매주 골프치고 대화하면서 한국 소식을 듣는다고 했다. 1c씨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니 여기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어려서부터 외국에 살아와서 문화적으로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1c씨는 필리핀국립대학교 교수로 있던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여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했고, 슬하에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1c의 자녀들은 모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아내가 교수로 있던 필리핀국립대학교를 나와서 필리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

9) 본 글에서 사용하는 ‘초국가적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하나 이상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국제인’ 혹은 ‘세계시민’과 같이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 규정에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c의 경우, “한국인이며 필리핀인”이라는 것은 출생으로서는 한국인, 시민권으로는 필리핀인이란 의미로 말한 것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규정에 있어서 국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도 본인처럼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이 없는 ‘국제인’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아들은 미국에서 직장생활도 했으며 중국계 필리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아들 가족 모두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딸은 필리핀 남자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두고 살고 있으며,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제1시기 이주 한인들은 대체로 한국의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을 떠나 더 나은 필리핀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들 중에서는 초기 필리핀 한인회를 구성하여 이끌었던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필리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구분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 정체성은 한국보다는 필리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 사람과 결혼하여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1a씨와 1c씨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희박함을 볼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중학생 때부터 외국에 머물며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에 온 1c씨의 경우는 국가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들의 국가 정체성은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로 다룬 3명 모두 자녀들이 필리핀에서는 흔한 경우처럼 외국계 혈통을 가진 필리핀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자녀들은 모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해 어떠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시기 이주 한인의 국가 정체성

이 시기에 이주한 한인들 중에는 총 7명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1973년 한국기업 주재원으로 왔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정착한 2a씨,¹⁰⁾ 1979년 선교사로 필리핀에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2b씨,¹¹⁾ 그리고 1980년에 중국계 필리핀 남자와 결혼하여 이주한 3c씨의¹²⁾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a씨는 1940년생으로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33살이 되던 1973년에 한국기업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필리핀에 이주한 후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 2b씨는 자신이 다니던 한국회사가 1985년 철수하게 되자 퇴사하고 필리핀에 남아 퇴직금으로 1986년부터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다. 2a씨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시민권자로서 필리핀에서 사업하는데 회사 지분율 등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주 초기에는 한국인들이 많지 않았으며, 매년 1월과 광복절에 한국 대사관에서 한인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 때 다들 모이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2a씨는 다양한 한인사회에 관여했으며 1990년대 초에는 한인회 회장도 역임했고, 지금은 필리핀한인노인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재외동포로서 재외국민투표에는 참가하고 있지만, 한국에 관한 뉴스에는 큰 것 말고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2a씨는 한국정부한테서 받은 혜택보다 필리핀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더 크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면 어색하고 불편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2a씨는 필리핀에 오기 전에 결혼한 한국인 부인과 함께 슬하에 자녀는 2남 1녀를 두고 있다. 자녀들 중 둘은 한국에서 낳아 어려서 데려왔

10) 본 인터뷰는 2017년 8월 5일 마카티에서 실시하였음.

11) 본 인터뷰는 2017년 8월 7일 안티폴로에서 실시하였음.

12) 본 인터뷰는 2018년 1월 7일 마닐라에서 실시하였음.

고, 막내딸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 1979년도에 다섯 식구 모두 한꺼번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집에서 한국말을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한국말을 하고, 아주 한국적으로 자랐다고 한다. 모두 국제학교(IS)를 나왔으며, 졸업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미국 대학으로 진학했고, 졸업 후 미국에서 직장을 얻어 정착했다. 자녀 3명 모두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 2a씨는 자신이 5대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큰며느리는 한국인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맘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큰 나라에서 김씨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얘기했다. 향후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고, 자녀들이 자신더러 미국에 들어와 살라고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즐겁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2b씨는 1945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79년 선교사로 파송 받아 필리핀에 온 후 현재까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 2b씨는 필리핀으로 파송된 초기 선교사로서 한인교회와 현지인교회를 모두 운영하기도 했다. 이주 초기에는 한인교회를 하면서 한인회 관련 모임에도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다면서, “한인교회 1개를 사역하는 것보다 필리핀 교회 10개를 사역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 한국 뉴스보다는 필리핀 뉴스, 특히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필리핀 정치인과의 친분이 있으며, 대통령 자문도 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했다. 2b씨는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한 자녀를 따라 안식년 차 미국에 가서 선교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때 영주권을 취득했고, 그 후 필리핀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2b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한국인 부인과 함께 자녀로는 아들 3명을 두고 있다. 가족이 모두 필리핀에 올 때 큰아이는 다섯 살, 둘째는 세 살, 막내는 한 살이었다고 했다. 필리핀에 와서 한국말은 엄마가 다 가

르쳤고, 아이들은 모두 미국인이 세운 선교사 학교를 다녔다.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보다 좋을 것이 없는 축복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는 다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위로 둘은 모두 미국에서 한인 교포여성과 결혼했고, 막내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하는데 한국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아내도 아이들과 미국에 살고 있고, 2b씨만 홀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다. 2b씨는, “돌이켜 보면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필리핀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또한 대를 이어 선교도 하며 함께 생활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다.

2c씨는 1954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8년 23세 때에 한국에서 중국계 필리핀 사업가를 만나 결혼했고, 1980년에 필리핀에 이주하여 필리핀 시민권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필리핀에 와서 남편의 도움으로 다양한 사업을 했으며, 한국음식점도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제법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2c씨는 과거에 각종 행사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들이 주로 자신의 식당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주 초기에 주로 필리핀 사람과 결혼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했으며, 점차 한인사회와는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고 했다. 2c씨는 비록 중국계 필리핀 남편과 결혼한 후 지금까지 필리핀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만, 한국이나 필리핀 국가 정체성보다는 중국에 대한 전망이 높아 보였다. 이는 중국계 필리핀인들의 성향과 흡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에서 부유층으로 살고 있는 사별한 남편의 가족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주 방문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했다.

2c씨는 필리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이 사별하였으며, 이후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만나 재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다.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 아빠를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했으며, 한국에도 자주 데려가

한국어도 잘한다고 했다. 자녀들은 모두 필리핀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으며, 위로 둘은 졸업 후 중국과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지금은 큰 아이가 홍콩에 살고 있고, 둘째와 막내는 필리핀에서 살고 있다. 2c씨는 자녀들이 한국인보다는 국제인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다. 특히 한국과 필리핀에 대해서는 약소국의 이미지가 강했으며,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향후 기회가 되면 중국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2시기에 필리핀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비록 연령대가 높기는 하지만 오늘날까지 필리핀 한인사회의 중심인물들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한국사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필리핀과의 경제적 위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시기에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필리핀에 이주하여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국가 정체성은 한국이나 필리핀 어느 한 곳에 속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초국가적 정체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영어와 필리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필리핀 사회에 깊숙이 동화되어 존경받는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례로 다룬 사업가 2a씨와 선교사 2b씨는 70세가 넘었지만 한국으로 귀국할 희망도 계획도 없으며, 필리핀에서 노후를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계 필리핀인 사업가와 결혼해서 이주한 2c씨의 경우도 남편 사별 후 한국인과 재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한국과 필리핀 어디에도 국가 정체성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필리핀에 진출한 한인들은 자녀들을 대부분 국제학교나 혹은 유사한 종류의 학교에서 영어로 교육을 시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임을 볼 수 있다. 이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한국이나 필리핀 문화보다는 국제적인 문화에 더욱 익숙하고, 미국에 유학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들 중 일부는 필리핀에 돌아와 부친의 기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3. 제3시기 이주 한인의 국가 정체성

이 시기에 이주한 한인들 중에는 총 7명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1992년에 필리핀에 휴식 차 왔다가 필리핀 여자와 결혼하여 정착한 3a씨,¹³⁾ 1998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형의 권유로 필리핀에 이주한 3b씨,¹⁴⁾ 그리고 2003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영어공부하러 필리핀에 왔다가 이주를 결심한 3c씨의¹⁵⁾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a씨는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1992년 잠시 휴식을 취할 겸해서 필리핀 왔다가 선교단체에서 일하던 필리핀 여자를 만나 1993년에 결혼한 후 현재까지 필리핀에 살고 있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한 3a씨는 아내와 함께 조그만 가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3a씨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은 아내의 명의로 하고 있으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아내였다. 그는 “한국에 대한 소식을 여기서 먼저 안다. 필리핀이 예전에 서울 가는 것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살면서 굳이 필리핀 한인사회에 대한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 때 필리핀 한인회에 참여하여 한필가족모임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네 차례 있었던 재외국민투표에도 모두 참여했고,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한 ‘코피노’¹⁶⁾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다문화관련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요즘에는 한인들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13) 본 인터뷰는 2017년 8월 2일 케손에서 실시하였음.

14) 본 인터뷰는 2017년 8월 3일 케손에서 실시하였음.

15) 본 인터뷰는 2018년 1월 7일 케손에서 실시하였음.

16) ‘코피노’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말하며, 주로 한국인 아버지가 돌보지 않고 필리핀인 어머니가 혼자서 낳아 기르는 경우를 일컫는다.

3a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고, 필리핀에서 입양한 아들이 하나 있다. 아내가 집에서 영어만 쓰고 아이들이 몬테소리 학교와 미국 선교사 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가장 편한 언어로 생각한다고 했다. 딸은 미국에 유학하여 대학을 졸업했고, 당장 취업이 어려워 필리핀에 돌아와 있지만 준비해서 미국에 갈 예정이라고 했다. 딸이 한국어는 못하지만 한국 TV프로그램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다고 했다. 3a씨는 아이들에게 특정 국가 정체성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으며,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본인도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고, 필리핀에서 노후까지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3b씨는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8년간 일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형님이 권유하여 1998년 필리핀으로 이주했다. 필리핀에서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차 한국에 들어갔다가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아 결혼 후 함께 이주해 살고 있다. 3b씨는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던 케손 지역에서 최초로 경제인 연합회를 조직해 많은 활동을 하기도 했다. 3b씨는 집에서 한국방송을 계속 보고 있으며, 아침에 눈뜨자마자 인터넷 다음뉴스를 제일 먼저 본다고 했다. 지난번 재외국민투표 때에는 한인단체에 소속되어 선거를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b씨는 현재 결혼한 아내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나중을 생각해서 중국인 학교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그리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했다. 3b씨는 자녀의 국가 정체성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의 국가 정체성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내가 일본에서도 오래 살다보니 한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 아이들은 영어가 편해서 자기들끼리 말

할 때는 영어를 쓰는데, 그럴 때면 내가 한국말을 하라고 한다.” 아이들의 장래 대학진학에 대해서 전에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있는 명문대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아이들도 한국을 좋아하고 있으며, 해외동포들에 대한 대학입학 특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아이들이 한국으로 대학을 가면, 함께 들어갈까 생각해 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이 모두 필리핀에 있고,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3c씨는 1973년 한국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에 쉬면서 영어 공부 좀 할 겸 약 2달 계획으로 처음 필리핀에 온 것이 계기가 되어 2004년에 아주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필리핀에 이주한 후 한국계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은 현지 법인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3c씨는 필리핀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주로 한국의 정치뉴스를 많이 보고, 스포츠도 확인하고, 이슈가 되는 일들은 주로 찾아서 보는 편이라고 했다. 한국에도 1년에 평균 2번 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번 재외국민투표가 있을 때도 투표했다고 한다. 3a씨는 현지 법인장이어서 한인상공회의소에 회사이름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나가 교류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듯 했다. 이는 현지 한인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독신으로 살고 있는 3c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 모임에 설이나 추석 중 한 번만 참석한다고 했다. “외국에 나와 있다고 가족 관계에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해외에 나와 있으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하게 된다”고 했다. 아직 미혼이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만나는 필리핀 여성이 있고, 지금은 양가 집안 식구들도 서로 왕래하는 사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것, 법에 묶이는 것,

아이를 가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만나는 여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했다. 3c씨는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기회가 되면 전부터 꿈꿨던 것처럼 북유럽에 가서 자연을 즐기며, 농사도 짓고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보다는 필리핀에 사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제3시기에 필리핀에 이주해 온 한인들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삶의 모습도 다양하다. 이들은 더 발전한 한국을 떠나 덜 발전한 필리핀으로 오게 된 배경에는 많은 경우 새로운 삶을 찾아보려는 측면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찾아서 보다 느슨한 필리핀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이주한 시기 혹은 이주 후 오래지 않아 급속히 발달한 교통·통신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됨을 볼 수 있다. 필리핀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3a씨의 경우도 한국 국적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한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b씨와 3c씨의 경우에도 한인 혹은 한국사회와 연관된 사업에 종사하면서 필리핀 현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3a씨의 경우에 자녀 모두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필리핀 사회에서 필리핀인으로 살고 있다. 반면 3b씨는 자녀들을 모두 중국계 초·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으며, 자녀들에게는 한국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맺음말

한인의 필리핀 이주 패턴은 그 특성에 따라 3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적 관계 혹은 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주의 이론에서 논하고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이주자들이 가지는 국가 정체성은 떠나온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여부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전수하는 데 또 다른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1시기에 이주해 온 한인들은 가난한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보다 보다 선진적인 필리핀 혹은 초국가적 정체성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요받아 왔으며, 또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방편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국제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전수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며, 자녀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필리핀 혹은 초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2시기에 이주해 온 한인들은 시기적으로는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적 위상이 변화되는 시점이다. 당시만 해도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점에서 필리핀에 이주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많은 경우 필리핀에 정착해 살면서 성공적인 외국인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필리핀 국가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초국가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자녀들도 대부분 국제학교에서 교육받고 미국에 유학한 후 미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필리핀에 와서 부모의 사업을 이어가는 현상을 보인다.

제3시기에 이주해 온 한인들은 시기적으로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적 위상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소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주하는 전문 고급인력이라는 특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이들의 필리핀 이주는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비록 필리핀에 이주해 있지만 교통·통신의 발달로 한국과의 다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사회에 통합된 정도도 약하며, 필리핀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은 여전하지만, 자녀들에게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전수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경우 자녀들은 대부분 필리핀 국가 정체성을 가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전수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남을 볼 수 있다.

필리핀에 제1시기나 제2시기에 이주한 한인들이 점차 연로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인 이주 1.5세대 혹은 2세대가 일부 필리핀에 남아서 그들의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또한 한국인 부부 가정에서 태어나 필리핀에서 성장한 자녀들도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대단히 희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리핀에 이주한 한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을 전수하는 것에 소홀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오히려 자녀들이 영어를 기본언어로 하는 초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기를 선호한다. 그럼으로써 부모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희박하고, 미국이

나 필리핀에서 한국계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필리핀 이주민 1.5세대와 2세대가 한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는 필리핀 한인동포 사회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8년 6월 29일

심사완료일: 2018년 7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5일

참고문헌

- 김동엽. 2009.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57: 233-265.
- 김도형. 2014. “일제 말기 필리핀·버마지역 한인 병사의 강제동원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153-196.
- 김민정. 2014. “한국과 필리핀 ‘사이’: 세계화정책 이전 필리핀의 재외한인과 결혼이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29-231.
- _____. 2015. “1900년대 초중반기 필리핀의 한인이주에 대한 성찰적 연구.” 『사회와역사』 107: 251-284.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81-106.
- 김휘택. 2013. “프랑스의 국가정체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프랑스학논집』 82: 305-338.
- 남근우. 2011. “제일동포사회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 민족, 조국 귀속성, 현실의 ‘3중 경계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1(4): 159-188.
- 미셸 세르, 실비 그로스조프 외 9명 지음, 이효숙 옮김. 2013. 『정체성, 나

는 누구인가』. 파주시: ㈜알마.

박승규. 2013.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지리학회지』 48(3): 453-465.

박정현·김동엽·리노바론. 2015. 『한국-필리핀 교류사』. 서울: 폴리테이아.

박철민. 2014. “국내 이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변용과 가치지향 - 한국(인)과의 가치충돌 양상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8(2): 41-75.

설동훈. 2014.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3: 278-312.

오영섭. 2015. “유학생 오영섭,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켜보다.” 성현경 엮음. 『경성 엘리트의 만국 유람기』 서울: 현실문화연구. 285-319.

윤성우. 2004. 『폴 리피르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윤인진·임창규. 2008. “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28(3): 409-438.

이도학. 2010. 『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 서울: 일지사

이석인. 2015. “한국계 미국인의 세대별 정체성 차이 분석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9(1): 189-211.

조의행. 2015. “광복 70년,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연구 - 민족과 민족사가 실증된 민족 정체성.” 『현상과인식』 39(3): 111-129.

최성환. 2010.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253-305.

홍용희. 2012.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의 이중적 정체성과 한류의 역할론.” 『한국사학연구』 35: 495-516.

Anderson, Benedict. 2003. *Imagined Communities* (1st print 1983). Pasig City: Anvil Publishing Inc.

Blair, E. H. and J. A. Robertson. 1906. *The Philippine Islands 1493-1898*,

- total 55 volumes (translation of primary sources), Cleveland 1903-9; reprinted in Manila in 1962.
- Castles, Stephen. 2002. "Migration and Community Formation under Condition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6(4): 1143-116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Hobsbawm, Eric J.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tsumi, Kanako. 2007. "Koreans in the Philippines: A Study of the Formation of their Social Organization." Miralao, Virginia A. and Lorena P. Makil (eds). *Exploring Transnational Communities in the Philippines*. Quezon City: Philippine Migration Research Netork and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 Kim, Dong-Yeob. 2015. "Korea-Philippine Relations: From Blood-tied Alliance to Strategic Partnership." LEE, Choong Lyol, HONG Seok-Joon and YOUN Dae-yeong (eds). *ASEAN-Korea Relations: Twenty-five Years of Partnership and Friendship*. Seoul: Nulmin Books Publishers. 674-723.
- Polo, Lily Ann. 1984. *A Cold War Alliance: Philippine-South Korean Relations, 1948-1971*. Quezon City: Asian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bstract

E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Koreans in the Philippines

KIM, Dong-Yeob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study, the national identity of Korean emigrants in the Philippines was set up and examined. The pattern of Korean emigration to the Philippine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relations or status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The national identity of these emigrant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In addition, international marriage is another key variable in forming and conveying national identity. Nevertheless existed slight differences, both children born in Korean-Filipino couples and Korean couples in the Philippines have a weak Korean national identity. This phenomenon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Korean emigrants in the Philippines prefer their children to have a transnational identity by speaking English as their primary language, and give not an emphasis on conveying their Korean national identity to their children.

Keywords: The Philippines, International Migration, Korean, National Identity, Transnationalism